

북미관계 변화에 대한 중국의 반응

전선미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 | smjeon@kdi.re.kr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은 북미 간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회담으로, 전 세계 하나뿐인 분단국가가 있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이벤트였다. 이에 한반도 주변국들은 북미관계 변화가 역내에 미칠 정치·경제적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본 경제자료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과 변화하는 북중관계를 정리하고자 한다. 첫 장에서는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정부 발표 자료, 언론 보도를 정리한다. 더불어 회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부표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이어서 두 번째 장은 금년 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시작으로 지난 6월 20일 3차 북중정상회담까지의 북중관계를 간략히 정리한다. 본 자료는 주로 중국 정부, 언론, 기고문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으며, 활용한 자료의 원문 정보와 출처를 부록으로 정리하여 제공한다.

I.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반응

1. 중국정부 - 외교부 공식발표를 중심으로

중국외교부는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외교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첫째, 북미 정상들이 내린 정치적 결단을 높이 평가하고 회담 성과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둘째,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발전 흐름에 부합하는 정확하고도 중요한 한걸음이며 셋째, 중국은 한반도문제의 중요한 당사국으로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노력하길 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반세기 넘게 적대관계였던 양국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대등한 관계로 대화하였다는 점에서 회담 자체만으로도 중요하고 긍정적이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북미회담 개최를 위해 중국이 특별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부표 1, 부표2 참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외교부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 외교부는 6월 12일 북미회담 당일부터 8차례의 정례기자회견을 통해¹⁾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관련 문제를 크게 ‘중국의 역할’, ‘한미군사연합훈련 중단’, ‘대북제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쌍(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서명국으로서 한반도 정전 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둘째,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조치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발표는 중국의 ‘쌍중단(雙暫停)’제안이 공정하고 합리적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 대북제재에 완화 내지 해제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화 하였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의를 시종일관 엄격히 집행하고 있고 국제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러나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다. 특히 안보리에 통과된 유엔 결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언급하며 대북제재 조치에 관한 새로운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의 우호적 이웃국가로서 국제의

1) 2018년 6월 24일 기준.

무를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 북한과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표 1 참조).²⁾

<표 1>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주요 내용

분류	주요 내용
중국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중요 당사국이자 정전협정 체결국으로서, 한반도 정전 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할 것이다. • 중국은 향후에도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반도비핵화 실현,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할 것이다. • 중국은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한반도비핵화, 한반도평화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미군사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은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조치이다. 중국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관련당사국들이 계속 서로를 향해 다가가면서 한반도비핵화와 그 정치적 해결과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길 희망한다.
평화체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해결과정에는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双暂停)’과 ‘쌍궤병행(双轨并行)’의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측의 ‘쌍중단(双暂停)’과 ‘쌍궤병행(双轨并行)’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임이 재차 증명되었으며, 이는 각국의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각국의 안보위협도 해결할 수 있다. • 한반도관련사무의 중요한 당사자이자 정전협정의 체결국으로서, 중국은 한반도평화진전 간 비핵화실현, 평화기제 구축, 평화수호 실현을 위하여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대북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전면적으로 집행하는 동시에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안보리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 중국은 유엔안보리제재 틀 이외의 독자제재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한다. 동시에 중국은 유엔안보리의 제재자체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아니다. • 각국은 현재 외교적 대화와 비핵화 실현 노력을 지지하고 협조해야 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프로세스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된 결의에는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는 관련제재를 조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북중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북한의 우호적 이웃국가로서 국제의무를 위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측과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주: 중국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 2018년 6월 12일부터 2018년 6월 24일까지 총 8번의 정례브리핑 중 북미정상회담과 관련된 내용은 총 6차례의 브리핑에서 언급됨. 이를 의제별로 분류하고 중복내용을 제외하여 정리함.

자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fmprc.gov.cn>, 접속일: 2018.6.24.).

2. 언론 보도

언론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국외교부에서 작성한 『중국 개황(2017)』 중 언론·출판 부분에 제공된 신문, 잡지 목록에 근거하여 위로부터 기재된 5개의 신문, 잡지인 인민일보(중국 공산당 기관지), 환구시보(인민일보산하 국제 시사문제지), 광명일보(지식계층 대상), 해방군보(중앙군사위원회 기관지), 공인일보(중국총공회 기관지)를 선정하여, 북미정상회담

2) 이와 관련하여 6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향후 중국이 북한에 농업기술 협력과 대북식량 원조 확대 여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변인은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북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경제건설로 전환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을 지지한다”고 대답하였다.

당일인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³⁾ 보도된 관련 기사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관련 기사유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고려하여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인민일보와 인민일보 산하 국제시사 문제지인 환구시보로 검색 범위를 좁혀 단순 사실 보도를 제외하고 논평을 위주로 정리하였다.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사와 논평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랜 기간 적대관계였던 양국 정상이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는 점, 북미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에 대해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은 한반도평화체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역사적이고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최근 발표된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두고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 및 핵 실험장 폐기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해 한미 양국이 그에 상응하는 첫 중대 조치로서, 군사훈련 중단이 실현이 된다면 새로운 한반도 정세가 열릴 것이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반면, 북미정상회담 및 그 성과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 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하지만, 공동성명에 나타난 ‘양국관계’, ‘평화체제’, ‘비핵화’와 관련된 내용은 2005년 9·19공동성명의 범주를 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2〉 주요 언론 보도내용

대분류	언론명	주요 내용
신문·잡지	인민일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평화체제를 추진함에 있어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북미공동성명과 ‘9.19 공동성명’을 비교해볼 때, 이번 북미공동성명에 나타난 ‘양국관계’, ‘평화체제’, ‘비핵화’에 관한 내용이 ‘9.19 공동성명’의 범주를 뛰어넘지 않음. 현 정세는 중국의 ‘쌍중단’, ‘쌍궤병행’구상으로 나아가고 있음. 대북제재는 필요에 따라 중단 혹은 해제 등의 조정이 필요함.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이자 중요 관련국으로 당사국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영구적 평화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자함. <p>[출처: http://opinion.people.com.cn/n1/2018/0613/c1003-30053610.html]</p>
	환구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발표된 북미공동성명이 불안정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에 관한 내용은 한반도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 북미 양국은 합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p>[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6/12238703.htm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비핵화와 주한미군철수와 관련된 문제는 중요 의제 중 하나임. 주한미군은 냉전의 산물로 이제 막을 내릴 때가 되었음. <p>[출처: http://opinion.huanqiu.com/hqpl/2018-06/12231951.htm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군사연합훈련은 한반도의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3) 2018. 6. 24 기준

4) 광명일보, 해방군보, 공인일보는 관련 기사가 없거나 한국에서 접속이 제한되어 제외하였다.

		<p>한미군사연합훈련이 중단된다면 한반도의 정세는 새롭게 발전할 것임. 또한 이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중단, 핵 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를 향한 태도 변화에 대해 한미 양국이 내놓은 첫 중대 조치임.</p> <p>[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6/12260122.html]</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단독기자회견을 통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염두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음.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미 양국이 군사훈련을 중단한다면(‘쌍중단’), 한반도비핵화 프로세스와 한반도평화체제를 동시에 추진되어(‘쌍궤병행’) 새로운 한반도 정세가 열릴 것임. 한반도내에서의 미군 참여가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냉전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임. <p>[출처: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6/12240049.html]</p>
--	--	---

주: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논평을 요약함.

자료: 인민일보 홈페이지(<http://www.people.com.cn/>), 접속일: 2018.6.24.); 환구시보 홈페이지(<http://www.huanqiu.com/>), 접속일: 2018.6.24.)

II. 북미관계의 변화와 북중관계

- 정상회담과 고위급 인사 교류를 중심으로

북중 양국은 최근 석 달 사이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⁵⁾ 제1차 북중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 해외순방이자 첫 중국 국민방문으로 3월25일~28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제1차 북중정상회담은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중국은 사후보도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사실을 확인해주었다. 회담은 중국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초청에 의해 성사되었다는 점 이외에 양국이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관춘(中関村)’을 방문하여 중국사회과학원에서 열린 ‘중국 과학 혁신 성과전’에 참석하였다.⁶⁾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열흘 뒤인 5월 7일~8일에 중국 다롄에서 제2차 북중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북한의 제의로 성사된 본 회담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3차 북중정상회담은 북미정상회담 직후인 6월 19일~20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중국은 북한의 경제 건설과 민생개선에 대한 지지를 표하는 등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우호관계를

5) 김정은 위원장은 2012년 집권 이후부터 2018년 6월19~20일에 개최되었던 북중정상회담까지 모두 6차례의 정상회담을 소화하였다. 6차례 모두 올해 상반기에 개최되었으며 한·미·중 3국이 회담 상대국이었다. 그 중, 중국과는 세 차례, 한국과는 두 차례, 미국과는 한 차례의 회담을 남·북·미·중 간 연쇄적으로(북중→남북→북중→남북→북미→북중) 개최되었다. (부표 4 참조)

6) 『한국경제』, 「김정은이 중관춘 방문한 이유」, 2018. 3. 28.

재확인하였다.⁷⁾ 방중 2일차인 20일,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봉주 내각총리, 과학·교육 분야를 담당하는 박태성 노동당 부위원장 등과 함께 중국농업과학원(中国农业科学院)내에 위치한 국가농업과기창신원(国家农业科技创新园)을 방문하여 중국의 첨단농업기술 참관하였다. 이어서 베이징시 궈도교통지휘센터(北京市轨道交通指挥中心)를 찾아 베이징의 지하철과 도시철도 관리 체계를 시찰하였다.

〈표 3〉 제1~3차 북중정상회담 개요

	제1차 북중정상회담	제2차 북중정상회담	제3차 북중정상회담
일시	2018년 3월 25~28일(2박3일)	2018년 5월 7~8일(1박 2일)	2018년 6월 19~20일(1박 2일)
장소	중국 (베이징)	중국 (다롄)	중국 (베이징)
숙소	다오위타이 국민관	방추이다오 영빈관	다오위타이 국민관
이동수단	• 전용열차(특별철도 운송)	• 전용기 참매1호	• 전용기 참매1호
대표 참석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 김정은(국무위원장) - 최룡해(국무위원회 부위원장) - 박광호(당부위원장) - 리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 김영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리용호(외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 김정은(국무위원장) - 리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김영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리용호(외무상) - 김여정(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측 - 김정은(국무위원장) - 최룡해(국무위원회 부위원장) - 박봉주(내각총리) - 김영철(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 리수용(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제부장) - 리용호(외무상) - 노광철(인민무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측 - 시진핑(국가주석) - 왕치산(국가부주석) - 리커창(총리) - 왕후닝(정치국 상무위원) - 양제츠(외교담당 정치국위원) - 덩쉐샹(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 황쿤밍(중앙선전부 부장) - 왕이(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측 - 시진핑(국가주석) - 왕후닝(정치국 상무위원) - 양제츠(외교담당 정치국위원) - 덩쉐샹(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 왕이(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측 - 시진핑(국가주석) - 왕치산(국가부주석) - 리커창(총리) - 왕후닝(정치국 상무위원) - 양제츠(외교담당 정치국위원) - 덩쉐샹(당중앙위원회판공청주임) - 귀성쿤(중앙정법위 서기) - 황쿤밍(중앙선전부 부장) - 왕이(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
주요사안	• 북중 친선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중요 사안에 대한 의견 교환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핵화 이후 경제개발 • 새로운 정세에 인식 모아 • 전략기술협동 강화
주요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과 회동 • 중관춘 내 국사회과학원에서 열린 '중국 과학 혁신 성과전'참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과 회동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과 회담 • 농업과기창신원 방문 • 궈도교통지휘센터 방문
특이사항	• 중국 시진핑 주석의 초청에	• 북한이 제의하여 개최되었음.	• 북미 정상회담 결과 설명

7) 『신화망』,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8. 6. 19.

	의해 개최되었음 • 비공개로 진행되었음 • 김정은 위원장의 첫 해외순방이자 첫 중국 국빈방문 • 북중 양국간 상호 친선 및 우호 증진을 위한 목적 • 북중 동맹 관계 재확인	• 2차 북중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의 태도변화에 대한 언급. • 북미 회담을 앞두고 북핵 협상 관련 양국 관심사 조율 • 싱가포르를 이동을 위한 전용기 대어 문제 등 논의	• 북핵 협상 과정 공동 대응 방안 논의 • 정전 및 평화 협정 체결 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입장 조율 • 대북 제재 해제 관련 중국 협조 요청 • 김여정 동행 안함
--	--	---	--

주: 중국 외교부 및 신화통신사 보도 자료를 근거로 작성함. 공식으로 보도되지 않은 내용은 한국의 보도 자료를 활용하였음.
 자료: 중국 외교부 (<http://www.fmprc.gov.cn>, 접속일: 2018.6.24); 신화망(<http://www.xinhuanet.com/home.htm>, 접속일: 2018.6.24); 『서울경제』, 「[김정은 3차 방중] '석달새 세 번' 북중밀착 재확인...대미 협상력 높일 방안 논의한 듯」, 2018. 6. 19; 『연합뉴스』, 「北 “김정은, 중국 방문...한반도 문제 깊은 의견 교환”」, 2018. 3. 28를 참고하여 작성.

같은 시기 북중 양국의 고위급 인사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쑹타오(宋涛)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중국예술단을 이끌고 방북하여 태양절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쑹타오(宋涛)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김정은 위원장과 나흘 사이에 두 차례의 회동과 연회, 그리고 한 차례의 공연 관람을 계기로 모두 5번의 만남을 가졌다. 이는 불과 5개월 전인 지난해 11월 시진핑(习近平) 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 한 것과 대조된다. 2018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초청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북한을 방문하였다. 중국 외교부장이 북한을 방문 한 것은 2007년 양제츠(杨洁篪) 당시 외교부장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방북 인사에 대한 북한의 보도내용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쑹타오(宋涛) 부장 방북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시진핑(习近平) 동지의 특사로 쑹타오(宋涛) 동지가 곧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짧게 보도한 반면, 올해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우리나라를 방문한 쑹타오(宋涛) 부장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셨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 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유대와 존경의 감정을 더욱 두텁게 하고” 등의 우호적인 보도를 내놓았다. 박태성 북한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 친선참관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북한 고위 인사들의 단체 방중은 2010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면담자리에서 “중국의 경제 건설과 개혁 개방 경험을 학습하기 위해 중국에 왔다”고 방중 목적을 설명했다. 북한 참관단은 베이징, 시안, 상하이, 저장성을 시찰하였는데, 특히 왕야준(王亚俊)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부장과 함께 저장성을 방문하여 처준(车俊) 저장성 당서기를 면담했다. 처준(车俊) 저장성 당서기는 “새로운 형세 아래서 중국과 북한 양당 최고 지도자가 이룬 중요한 합의를 실천하고, 교류·협력을 강화해 북중 양국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표 4 참조).⁸⁾

〈표 4〉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북중 간 고위급 인사 교류¹⁰⁾

일시	주요 일지
2012 ⁹⁾	김정은 공식 집권
2012.8	왕자루이(王家瑞) 당시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중국 지도부의 인사 전달
2012.8	장성택 당시 노동당 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후진타오(胡锦涛) 중국 국가주석, 원자바오(温家宝) 총리 등과 만남
2012.11	리젠궈(李建国) 당시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은 위원장을 접견하여 시진핑 주석의 친서 전달
2013.5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공식특사 자격으로 방중
2013.7	리위안차오(李源潮) 당시 중국 국가부주석, 북한의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방북하여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2015.9	최룡해 당시 노동당 비서, 중국의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 방중(시진핑 주석과의 단독 면담 불발)
2015.10	류원산(刘云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경축 열병식 참석
2016.6	리수용 당 부위원장, 시진핑(习近平) 주석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의 인사와 구두 친서를 전달
2017.11	송타오(宋涛)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 중국공산당 19차 대회 결과 설명을 위해 특사 자격으로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만남 불발)
2018.3.25~28	제1차 북중정상회담 (시진핑 중국 주석의 초청)
2018.4.3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리용호 북한외무상과 회담
2018.4.14	송타오(宋涛)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 예술단 단장으로 방중
2018.5.2-3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방북(리용호 북한외무상의 초청) • 왕이 중국 외교 부장 - 리용호 외무상 회담(5.2) • 왕이 중국 외교부장 - 김정은 위원장과 접견(5.3)
2018.5.8	제2차 북중정상회담(2018.5.7.-5.8)
2018.5.14-24	북한고위급 친선참관단 중국방문
2018.6.19.~20	제3차 북중정상회담(6.19) • 시진핑 국가주석 - 김정은 위원장 회견(6.20)

자료: 중국 외교부 (<http://www.fmprc.gov.cn>, 접속일: 2018. 6. 24); 신화망(<http://www.xinhuanet.com/>, 접속일: 2018. 6. 24); 「연합뉴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 일지」, 2018. 3. 28.참고하여 작성함.

8) 「아주경제」, 「일주일째 중국 방문 북노동당 대표단 '경제배우기'행보」, 2018. 5. 22.
9) 정확한 날짜에 대한 공식자료 없음.
10) 2018년 초부터 현재까지의 남북미중의 외교일정에 대해서는 (부표4)참조.

참고문헌

- 『서울경제』, 「[김정은 3차 방중]‘석달새 세 번’ 북중밀착 재확인...대미 협상력 높일 방안 논의한 듯」, 2018. 6. 19.
- 『연합뉴스』, 「김정은 체제 출범이후 북·중 고위급 교류 일지」, 2018. 3. 28.
- 『연합뉴스』, 「北 “김정은, 중국 방문...한반도 문제 깊은 의견 교환”」, 2018. 3. 28.
- 외교부, 『중국 개황(2017)』, 2018. 1. 12.
- 『한국경제』, 「김정은이 중관춘 방문한 이유」, 2018. 3. 28.
- 『아주경제』, 「일주일째 중국 방문 北노동당 대표단 ‘경제배우기’행보」, 2018. 5. 22.
- 『신화망』,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在大连举行会晤」, 2018. 5. 8.
- 『신화망』, 「习近平同朝鲜劳动党委员长金正恩举行会谈」, 2018. 6. 19.

<웹사이트>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http://www.fmprc.gov.cn>).
- 신화망 (<http://www.xinhuanet.com>).
- 인민일보 (<http://www.people.com.cn>).
- 차하얼학회 (<http://www.charhar.org.cn>).
- 환구시보 (<http://www.huanqiu.com>).

<부표 1> 중국 외교부성명 전문(번역)

외교부 성명

북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긍정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이는 한반도비핵화를 추진하고 정치적인 해결 진척을 추동하는 중요한 진전이다. 우리는 북미 양국 정상이 내린 정치적 결단을 고도로 찬양하고 회담이 이룩한 성과에 환영과 지지를 표하며, 회담이 성과를 이룩하도록 추동한 데 이바지한 유관각국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고 60여년간 지속된 적대시와 대립을 끝내고 한반도와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것은 시대발전 흐름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및 회담이 이룩한 성과는 상기에서 언급한 목표를 향해 내디딘 정확하고도 중요한 한걸음이다.

중국은 한반도비핵화 실현을 견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견지하며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견지해왔고 이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래 한반도 정세에는 중대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이 이룩한 성과는 중국의 기대에 부합된다. 우리는 북미 양국의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에 따른 후속 협상을 추진하며 성과를 진일보 공고히 하고 확대함으로써 정치적인 한반도문제 해결이 지속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진전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또한 이를 지지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이웃이며 중요한 한 축으로서 중국은 유관국들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반도 평화기제 구축을 위해 진력할 것이다.

주: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외교부성명' 번역.

자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fmprc.gov.cn/web/zyxw/t1568110.shtml>), 접속일: 2018. 6. 24).

<부표 2> 중국 외교부 성명 전문(원문)

外交部声明

朝美领导人会晤顺利举行并取得了积极成果。这是推动朝鲜半岛无核化和政治解决进程取得的重要进展。我们对朝美两国领导人作出的政治决断表示高度赞赏，对会晤取得的成果表示欢迎和支持，对有关各方为推动会晤取得成功所作努力予以积极评价。

· 实现半岛无核化，结束持续六十多年的敌视与对立，谋求半岛和地区的持久和平与繁荣，符合时代发展潮流，也是国际社会的普遍呼声。此次朝美领导人会晤及其取得的成果，是向着上述目标迈出的正确而重要的步伐。

· 中方坚持实现半岛无核化，坚持维护半岛和平与稳定，坚持通过对话协商解决重大问题，为此作出了不懈努力。一段时间以来，半岛形势出现的重大积极变化，特别是朝美领导人会晤取得的成果，符合中方期待。我们希望并支持朝美双方落实好两国领导人达成的共识，推进后续协商，进一步巩固和扩大成果，使政治解决半岛问题成为可持续、不可逆的进程。

· 中方作为半岛近邻和重要一方，愿同有关各方一道，继续致力于实现半岛无核化和建立半岛和平机制。

자료: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http://www.fmprc.gov.cn>, 접속일: 2018. 6. 24).

<부표 3>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전문가 의견¹¹⁾

분류	주요내용
자칭궈(贾庆国) 중국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의 비핵화는 불확실하고 복잡한 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됨. 강화된 '채찍과 당근'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채찍'은 이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충분히 강화된 만큼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에 모든 관련국이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임. <p>[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14018007]</p>
청샤오허(成晓河)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핵화에 있어 CVID(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문구와 구체적 시간표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 북한의 체제 보장 그리고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미흡했다는 평가임. 그러나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세부적 성과로 평가함. 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통화할 것이라고 밝힌 점은 중국의 존재감이 재확인된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이 리커창 총리의 전용기를 이용한 것은 밀접한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함. <p>[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614018007]</p>
시다밍(刁大明)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부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 양국의 지도자는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인식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이로써 양국은 향후 상호교류와 소통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음. <p>[출처:http://www.xinhuanet.com/world/2018-06/12/c_1122975807.htm]</p>
우신보(吴心伯) 중국 복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점,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협력의지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평가함. 향후 한반도비핵화프로세스 과정 중 구체적인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많은 난관을 마주할 것으로 예상됨.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체제안전 보장이 필요함. 그러나 미국의 체제안전 보장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국의 보장과 약속을 더 중요시 할 것. 중국은 정전협정의 서명국으로 중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참여해야 함.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이든 북한경제발전과 관련된 문제이든 중국의 역할은 대체불가하며 중국이 한반도문제에 있어 소외되기는 어려울 것임. <p>[출처: http://www.iis.fudan.edu.cn/49/56/c6897a149846/page.htm]</p>
정지용(郑继永) 중국 복단대 한국·북한 연구센터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로 적대시하고 신뢰하지 못하던 양국이 직접 마주앉아 대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실질적 담판을 위한 좋은 시작으로 평가함. 앞으로 비핵화의 구체적 시간표, 순서, 방법 등에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분명히 있음. 북한은 정권과 국토에 대한 안전을 요구할 것임. 북한이 핵을 포기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실질적인 행동을 보였을 때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을지가 중요함. <p>[출처: http://www.iis.fudan.edu.cn/49/34/c6897a149812/page.htm]</p>
주펑(朱锋)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의 결과는 북미 양국 모두 빈손으로 끝나 외교적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음.

11) 중국의 싱크탱크 및 한반도 연구자를 중심으로 북미정상과 관련된 문장 위주로 주요내용을 정리함. 시다밍(刁大明), 왕생(王生), 정용년(郑永年), 왕권성(王健生)의 경우는 신뢰도에 올라온 기사를 기반으로 정리함.

<p>중국 난징대 국제관계연구원 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핵보유국이자 장거리탄두미사일기술을 보유한 북한이 국제사회에게 주는 위협은 과거 5년, 1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음.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고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느슨해 질 수는 없음. • 양자·다자간 대화프로세스를 통한 적극적 외교 노력은 유관국의 이익에 부합됨. 북핵문제의 최종해결 및 미래의 한반도평화번영질서의 구현을 위해선 '6자 회담'이 반드시 열려야 하며,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안보기제를 조속히 가동하여 동북아의 지역성 해결방안을 실현할 수 있음. <p>[출처: http://www.charhar.org.cn/newsinfo.aspx?newsid=13265]</p>
<p>왕성(王生) 중국 길림대 국제 정치학과 교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한반도의 '평화의 문'을 열었으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발전을 위한 계기를 제공하였음. 북미양국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을 따라 계속 나아간다면 한반도의 긴장정세는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고 이 또한 동북아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줄 것임. <p>[출처:http://www.xinhuanet.com/world/2018-06/12/c_1122975807.htm]</p>
<p>정용년(鄭永年) 싱가포르 국립대 동아연구소 소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북미 정상회담으로 볼 때 양국은 모두 실무적이고 다소 타협했다고 평가함. 이는 북미양국의 올바른 시작이라고 인정함. 한반도문제 해결은 장기적인 사안으로, 반세기 동안 지속된 분쟁이 단 몇 시간 안에 해결될 수는 없는 것임. • 한반도 비핵화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거쳐야 함. <p>[출처:http://www.xinhuanet.com/world/2018-06/12/c_1122975807.htm]</p>
<p>왕권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 연구원 부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북미 양국과 국제사회는 올해 초부터 어렵게 형성된 정세완화의 분위기를 귀하게 여기고 상호 전진하면서 한반도비핵화와 정치적인 문제해결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p>[출처:http://www.xinhuanet.com/world/2018-06/12/c_1122975807.htm]</p>
<p>류밍(刘鸣) 상해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의 두 대국인 미중 양국은 비핵화의 책임이 있으며 방식부터 분담비용, 감독관리 등에 관한 협상에 임해야 함. • 중국은 '단계적이고 동시적 이행' 방법을 지지함. • 북미 간, 남북 간 상호불가침조약이 각각 체결될길 기대하며, 동북아 6개국 참여하는 지역안보협력기제를 공동건설을 주장함. <p>[출처: http://www.charhar.org.cn/newsinfo.aspx?newsid=13250]</p>
<p>조우후청(周虎城) 중국 차하얼학회 상임 부비서장 겸 선임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에 있어서 UN 2397호 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엄정한 집행이 없었다면, 북한이 이렇게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았을 것임. 그러므로 향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지속적 추동과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과 공헌이 없다면, 한반도의 평화라는 기간이 흔들릴 것임. <p>[출처: http://www.charhar.org.cn/newsinfo.aspx?newsid=13261]</p>
<p>장징웨이(张敬伟) 중국 차하얼학회 연구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서막은 잘 열렸으나, 한반도비핵화로 가는 길은 가시밭길임. 북한의 핵포기는 결국 미국이 북한의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이라는 두 카드를 만족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그래서 핵미사일무기는 북미양국 담판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것임. 북미양국의 상호신뢰 결여 및 양국 지도자간 협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면 북한의 핵포기는 순탄치 않을 것임. • 한반도비핵화문제 이외에도 북미평화선언에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중국의 배제는 법적으로 타당치 않으며, 한국이 이 평화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더욱 비합리적임. <p>[출처: http://www.charhar.org.cn/newsinfo.aspx?newsid=13251]</p>
<p>가오양(高扬) 중국 차하얼학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문제해결을 위한 좋은 시작을 알렸음. 그러나 향후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지역내외의 이해당사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할 것임. 그러므로 평화적 해결이라는 낙관적 입장 이외에도 흑시 발생할 수 있는 난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에 따른 만전의 준비가 필요함

연구원	[출처: http://baijiahao.baidu.com/s?id=1603147862955936414&wfr=spider&for=pc]
차오신(曹辛) 중국 차하얼학회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공개하지 않은 양국간 막후 거래가 분명히 있으며, 이는 한반도비핵화의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함. 중국은 이 시점에서 향후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준비하고, 특히 사전정치작업차 북중간 관계설정에 힘써야 함. <p>[출처: http://www.charhar.org.cn/newsinfo.aspx?newsid=13258]</p>
양리창(梁立昌) 중국 차하얼학회 반도평화연구중심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번 북미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의 체면을 좀 더 살려주면서 실질적 비핵화과정으로 들어가자는 트럼프식 비핵화방법을 알 수 있었다는 점임. 그러나 보여주기가 무대효과가 실질적 의의보다 컸음은 부인할 수 없음. 북미정상간 체결한 협정서에는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부족하고, 양국 모두 '단기적 기회주의'의 정책경향이 짙다는 점, 양국간 해결할 정치외교적 문제(북한인권, 북한체제안전보장 등)가 산적하다는 점이 우려됨.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실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북미간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님. 이보다 남북한 및 미중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화선언을 발표함이 더욱 타당함. <p>[출처: http://www.charhar.org.cn/newsinfo.aspx?newsid=13264]</p>

자료: 위에 상기한 정보의 자료를 번역·요약 정리하여 작성함.

<부표 4> 2018. 1. 1(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2018. 6. 20(제3차 북중정상회담) 주요 일지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1.1) ▶	1월	◀ 한미 정상 통화 : 연합훈련 연기 합의(1.4)
평창 올림픽 개막식 북 고위급 방남(2.9) ▶	2월	◀ 평창 올림픽 폐막식 고위급 방남(2.25)
대북특사단 방북(3.5) ▶	3월	◀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경의용 실장 방미)(3.8)
※ 2018 1차 북중정상회담 (3.25-3.28) ▶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 1차 방북 (3.31-4.1)
남측 예술단 평양방문 '봄이온다' 공연(4.1-4.3) ▶	4월	◀ 송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방북, 북중예술단 단장 자격으로 태양절 기념행사 참석(4.14)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및 핵 실험 전면 중단 결정(4.20) ▶		◀ ※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4.27)
왕이 외교부장 방북 (5.2-5.3) ▶	5월	◀ ※ 2018 2차 북중정상회담(5.7-5.8)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2차 방북(5.8-5.9) ▶		◀ 트럼프 미 대통령,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일시 및 장소 공개(5.10)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 억류 미국인 3명 송환 ▶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및 언론초청 선언(5.12) ▶		

<p>폼페이오미 국무장관, 북한 경제 언급 “전력망과 인프라 건설 도울 것”(5.13) ▶</p>		<p>◀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 및 언론초청 선언(5.12)</p>
<p>북, 남북고위급 회담 불참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일방적 핵포기 강요시 북미회담 재고려 발언(5.16) ▶</p>		<p>◀ 북한 고위급 친선참관단 방중(5.14-5.24) 리선권 남북고위급 회담 북한대표 발표, “엄중한 사태 해소되지 않으면 한국의 현 정권과 다시 마주앉는 일이 쉽지 않을 것”(5.17)</p>
<p>북, 풍계리취재 남측기자단 반려(5.18) ▶</p>		<p>한미 정상회담 개최 ◀ 북미정상회담 성사 위해 노력하는데 합의(5.21-5.22)</p>
<p>북한, 풍계리 핵실험 폭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조미(북미)수뇌회담 재고려 제기”, 펜스 미 부통령 겨냥 비난(5.24) ▶</p>		<p>◀ 북,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5.24)</p>
<p>北, 김계관 “아무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풀어나갈 용의”(5.25) 美,트럼프 “북한으로부터 따뜻하고 생산적인 발표, 매우 좋은 소식,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싱가포르에서 다음날 12일 그대로 열릴 것” 서훈-김영철 가인, 남북 정상 만남 논의(5.25) ▶</p>		<p>◀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5.25-5.26) 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재추진 공식화(5.27)</p>
<p>※ 2018 제2차 남북정상회담(5.26) ▶</p>		
<p>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방미(5.30-6.?) ▶</p>		
<p>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백안관서 트럼프 미 대통령 면담(6.2) ▶</p>	<p>6월</p>	<p>◀ 남북고위급 회담(6.1)</p>
<p>트럼프 미 대통령, 북미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가능성 언급(6.2) ▶</p>		<p>◀ ※ 북미정상회담(6.12)</p>
<p>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한(6.13-6.14) ▶</p>		<p>◀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중(6.14)</p>
<p>※ 2018 3차 북중정상회담(6.19-6.20) ▶</p>		

자료: 중국 외교부 자료 및 각종 언론 보도를 참고하여 작성.